

한국어

서요서: 내 이름은 빨강

Suh Yongsun:  
My Name is Red

강

A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87 Yulgok-ro 3-gil, Jongno-gu, Seoul 03062, South Korea  
T +82 2 733 8949  
F +82 2 733 8377  
www.artsonje.org

SJ 2023.7.15.-10.22. C

서용선:

## 내 이름은 빨강

작가 서용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도시-역사’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며, 그 탐구를 ‘물질-환경(자연)-신화’으로 확장하고,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동시대적 삶의 조건과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작가는 인물화-역사화-풍경화라는 회화의 유형에 근거하여, 형식적으로 표현주의와 신구상회화의 계보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해 왔다. 50여 년이 넘는 그의 이러한 회화의 여정은 ‘회화라는 매체에 대한 본질적 탐구’, ‘우리를 구성하는 역사에 대한 동시대적 인식’, ‘공존의 시간과 장소로서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성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용선 회화 세계를 재검토하고, 그의 예술 세계를 ‘회화적 공간(pictorial space)’으로 다시 출현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그의 회화 세계를 서사적이고(the narrative) 구상적인(the figurative) 틀에 국한시키지 않으면서, 형상적이고(the figural) 감각적인(the sensible) 세계, 즉 ‘회화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서용선 회화의 급진성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은 다음과 같은 좌표 속에서 서용선 작업 세계의 새로운 공간을 출현시킨다. 한 축은 ‘도시-인간-역사(신화)-자연’이고 또 다른 축은 ‘선-면-형-색’으로 이루어지는 축이다. 전자는 서사적(이야기적) 세계의 축으로, 서사성과 구성성을 드러내며, 후자는 회화적(감각적) 세계의 축으로, 가시성과 심미성을 드러낸다. 이 좌표가 형성하는 공간 속에서 작가의 개별 작업들은 제작 시대와 개별 작업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재조합된다. 윤리와 정치, 폭력과 파괴, 자유와 해방, 회복과 치유, 삶과 죽음은 이러한 좌표의 중요한 벡터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번 전시는 서용선의 회화적 공간이 갖는 감각적이고 정치적인 세계를 다르게 드러내고자 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된다. 1부 ‘골드’는 서용선 회화의 중요 공간인 도시를 다루며, 2부 ‘블랙’은 사람, 정치, 역사, 생명의 의미를 서용선 회화 세계를 가로지르며 탐구한다. 그리고 3부 ‘나-비’는 보편적 세계를 향한 작가의 의지와 예술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전시 제목으로 사용된 ‘내 이름은 빨강’은 튀르키예 소설가 오르한 파묵의 소설, 『Benim Adım Kırmızı』(1998)에서 따왔다. 1591년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전통과 서구의 갈등이 회화와 화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소설이다. 전시를 구성하는 소재목들 역시, 이 소설의 주요 모티브와 연결된다. 1부와 2부는 7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더그라운드, 스페이스1에서 진행되며, 3부는 스페이스2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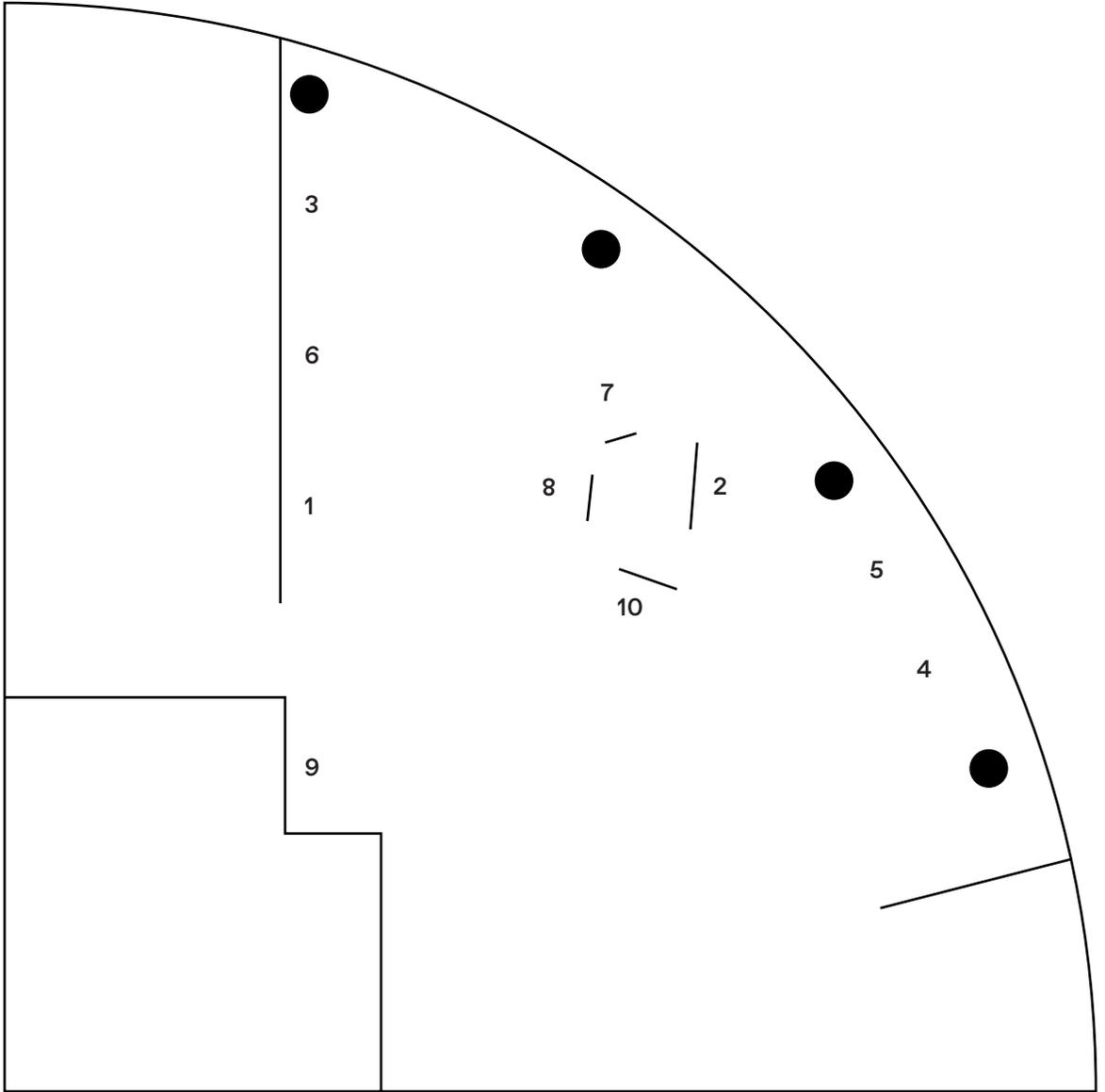
1부

골드

2023. 7. 15.-  
10. 22.

서용선의 도시 경험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한다. 어린 시절 작가는 폐허가 된 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작가가 본격적으로 도시를 그리기 시작한 시기는 새로운 서울, 강남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 80년대와 90년대이다. 80년대 서울은 경제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성장과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작가는 이러한 도시의 변화, 이동하는 사람들과 교통수단을 통해서 보이는 도시 경관 등에 주목했다. 작가는 도시를 묘사하기보다, 과거와 현재가 응축된 장소로서 도시, 서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서울이라는 공간은 작가에게 현재를 탐구하는 출발점이자 토대가 된다. 작가의 이러한 도시와 도시인에 관한 연구는 뉴욕, 베를린, 베이징, 멜버른, 말린디 등으로 확장된다.

지도



- 1 속대 입구 07:00-09:00, 1991, 캔버스에 아크릴릭, 비닐 기법, 180×230cm.

서용선의 도시에 대한 탐구는 자신의 동선과 유사하게 연결된다. 작가로서의 생활과 대학 강사로서의 생활을 병행하면서 집, 작업실, 대학 사이에서 보이는 풍경을 그려나간다. 그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자신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통해서 관찰한다. 교통수단의 창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거리에서 이동을 위해서 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90년대 서울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인의 삶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청계천에서>(1989), <낙성대 입구, 좌회전>(1992), <총신대 입구>(1997) 등과 더불어 90년대 서울의 경관과 사람들을 표상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 2 도시-차 안에서, 1989, 1991, 캔버스에 유채, 230×180cm.  
3 버스 속 사람들, 1992, 캔버스에 아크릴릭, 259×338cm.

작가의 도시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이다. 작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이라는 공간을 이동해 왔다. 미아리-정릉-속대입구-총신대역-낙성대 등으로 이동하면서 작가는 도시의 변화와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본다는 행위는 작가에게 중요하다. 그것은 화가로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에게 이동 수단의 창은 도시를 바라보는 주요한 시각 장치가 된다. 한편 작가가 도시에서 주목하는 것은 광고판이다. 상업적인 광고판에서부터 정치 선전물들, 뉴스 전광판에 이르기까지 발화하는 도시로서 광고판은 도시의 황홀경이지만 한편으로 도시의 욕망과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도시의 풍경을 하나의 허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돌파하고자 한다. <갈등>(1992)과 더불어 이 두 작업은 서용선 초기 도시 회화의 중요한 작업들이다.

- 4 도심, 1997-2000, 캔버스에 유채, 260×200cm.  
8 도시, 1997, 2004, 캔버스에 아크릴릭, 117×91cm.

대체로 서용선의 서울에 대한 도시 탐구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의 지리적·문화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강남이라는 뉴서울이 개발되고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90년대는 소비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산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되고 한국인들의 삶도 변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러나 작업은 경제발전의 흥분과 기대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거대하게 재편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확장을 기하학적으로 표상하거나 그 도시 속에서 분주히 이동하거나 멈춰 서있는 인물들과 자동차들의 모습뿐이다. 작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묘사하기보다 변화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의 현재를 질문하고 있다.

- 5 보는 사람들, 1991, 캔버스에 비닐기법, 208×204cm.  
6 두 사람, 1992, 캔버스에 유채, 53×73cm.

도시 공간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작가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에 주목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거나 바라보고, 어디로 가거나 혹은 멈춰 서 있다.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인물 군상에 대한 탐구는 ‘도시에서’, ‘거리의 사람들’과 같은 제목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작업에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남자’, ‘여자’ 등의 제목의 인물화나 ‘갈등’, ‘역사’ 등의 단어로 명명된 인물화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이다. 본다는 행위와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것 사이에서 도시인은 부유한다.

- 7 광장, 2006, 캔버스에 아크릴릭, 76×60cm.

마름모 패턴의 바닥이 캔버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어두운 하늘이 낮게 드리워진 이 그림의 가운데에는 철조망이 그려져 있다. 철조망 저편에는 여성 북한군이 있으며, 철조망 이편에는 하얀 셔츠의 남성이 서 있고, 뒤편으로 폐허가 된 건물이 서 있다. ‘광장’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한국전쟁에 대한 작가의 연구 전시에 출품된 작품이다. 동일한 제목의 다른 그림이 있다. 정전 이후 포로들의 귀환을 다룬 이 작업은 느슨하게 최인훈의 소설, 『광장』과 연결되는 것 같다. 한국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이 작업이 도시에 대한 탐구와 연결되어

전시되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문명의 파괴와 도시의 현재를 광장이라는 도시의 공적 장소를 통해서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서이다.

---

9 23번가 출구, 2010, 캔버스에 아크릴릭,  
197×124.7cm.

10 브루클린,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120cm.

작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벗어나,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 다양한 도시로 떠난다. 이러한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작가로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탐구하는 주제를 위한 현장 답사이기도 하다. 뉴욕은 작가가 지금도 자주 방문하는 도시이며,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작가가 도시를 방문할 때 주목하는 것은 그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뉴욕의 지하철을 비롯한 베를린의 우반과 베이징의 자전거 등은 그 도시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장소이다.

1951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1979) 및 대학원 서양화과(1982)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1986-2008) 역임 및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16-현재).

대표적 개인전으로 «서용선의 마고이야기, 우리 안의 여신을 찾아서»(서울여성역사문화공간 여담재, 서울, 2021), «만첩산중(萬疊山中) 서용선회화»(여주미술관, 여주, 2021), «통증·징후·증세: 서용선의 역사 그리기»(아트센터화이트블럭, 파주, 2019), «확장하는 선, 서용선 드로잉»(아르코미술관, 서울, 2016), «서용선의 도시그리기: 유토피즘과 그 현실사이»(금호미술관 /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5), «기억·재현, 서용선과 6.25»(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2013), «서용선 풍경, 오대산»(동산방화랑 / 리씨갤러리, 서울, 2012), «시선의 정치»(학교재갤러리, 서울, 2011), «서용선의 풍경화»(리씨갤러리, 서울, 2010), «2009 올해의 작가 - 서용선»(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서용선»(철암역갤러리, 태백, 2006), «미래의 기억»(일민미술관, 서울, 2004), «서용선 1993-1999 노산군(단종)일지»(영월문화원, 영월, 1999), «서용선 1987-1993, 노산군(단종)일기»(신세계갤러리, 서울, 1993), «서용선»(문예진흥원미술회관, 서울, 1989) 등이 있으며, 그룹전으로,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즈즘 1막-2막»(아트선재센터, 서울, 2022), «할아텍 철암그리기 20주년 기념전»(태백석탄박물관 기념전시실, 태백 /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2021), 2020 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부산현대미술관 외, 부산, 2020),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앉는 법»(인디프레스, 서울, 2016), «바람을 흔들다: (역)사적 그림을 위하여»(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4), «2013 평화미술 프로젝트 ‘백령도 - 525,600시간과의 인터뷰»(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3), «Korean Painting Now»(국립타이완미술관, 타이중, 타이완, 2012), «코리안랩소디 -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삼성미술관리움, 서울, 2011), «신호탄»(기무사 강당 및 기무사내 부지(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09), «베를린에서 DMZ까지»(소마미술관, 서울, 2005), 제4회

광주비엔날레 «P\_A\_U\_S\_E, 프로젝트 3 집행유예»(5.18자유공원 내 헌병대 모형관 영창, 광주, 2002), «제1회 철암그리기»(석탄박물관, 태백, 2001), «한국미술 '97 인간 동물 기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7),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6), «KOREAANSE SCHILDERKUNST NU»(Rijksmuseum Voor Volkenkunde(국립민족학박물관), 레이든, 네덜란드, 1996), «'94 서울 문화읽기»(한원미술관, 서울, 1994), «신형상 6인»(모란미술관, 남양주, 1990), «현, 상 - 그 변용과 가능»(녹색갤러리, 서울, 1988), «Seoul in Seoul»(오사카부립현대미술센터, 오사카, 일본, 1986), «'82문제작가 작품전-평론가12인위촉선정»(서울미술관, 서울, 1983), «서울'80 - Work with Photo 창립전»(공간미술관, 서울, 1980) 등이 있다.

## 특별 강연

일시: 2023. 8. 3.(목) 16:00-18:00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강연자: 정영목(서울대 명예교수)

입장료: 무료 · 전시관람료 별도

## 아티스트 토크

일시: 2023. 8. 25.(금) 16:00-18:00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대담자: 서용선, 신정훈, 우정아, 김장언

입장료: 무료 · 전시관람료 별도

## 전시 해설(도슨트)

홈페이지 참조

[www.artsonje.org](http://www.artsonje.org)

### 리플렛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

글: 김장언

편집: 김장언, 최한나

그래픽디자인: 강문식

펴낸곳: 아트선재센터

펴낸날: 2023. 7. 15.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전시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

2023. 7. 15.-10. 22.

장소: 아트선재센터

주최: 아트선재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협찬: 매일유업(주)

### 관람안내

입장:

25-64세: 10,000원

19-24세: 7,000원

9-18세: 5,000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7,000원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CIMAM·서울시미술관

협의회 카드 소지자

개관시간: 12:00-19:00

(월요일 휴관)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733.8949

F. 02-733-8377

[artsonje.press@gmail.com](mailto:artsonje.press@gmail.com)

[www.artsonje.org](http://www.artsonje.org)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